

◀ 신년 기획기사 1탄

“방아머리 관광객, 화장실이 가장 불편하다” 개방화장실로 풀어야 할 대부도의 숙제

길 막혀도 걱정 없는 대부도?
대부도 찾는 관광객 편의는
‘화장실 개방’에서 시작된다

여름철 성수기만 되면 대부도 방아머리 일대는 관광객으로 북적인다. 하지만 관광객들이 가장 크게 호소하는 불편은 의외로 단순하다. 바로 화장실 부족 문제다. 방아머리 주변에 공용화장실이 있긴 하지만, 물려드는 인파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관광객들은 “화장실을 찾느라 방아머리를 몇 바퀴나 돌았다”고 하소연한다.

방아머리는 재정사업을 통해 환경이 정비되고 방문객이 늘면서 주변 상가들도 일정 부분 수혜를 보고 있다. 이제에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참여와 봉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 핵심 대안이 바로 ‘개방화장실’ 제도다.

개방화장실은 민간 상가의 화장실을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로, 관광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식이다. 방아머리뿐 아니라 대부도항로, 대선로를 따라 늘어선 상가들까지 참여한다면, 주말 교통체증 속에서도 관광객들이 화장실 걱정 없이 대부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부도는 길이 막혀도 화장실은 걱정 없다”는 입소문은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강력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물론 개방에는 행정의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실제로 수원시는 화장지와 운영비를 대변기 수에 따라 월 6만~1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원주시는 개방시간과 청결도를 점수화해 최대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송파구 역시 화장지와 위생용품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안산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대부도 일대 상가 화장실이 개방화장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 안산시 희망을 담는다

박해철 국회의원과의 함께하는 2026년 해맞이 행사가 1월1일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백운공원 정상에서 진행됐다. 이날 해맞이 행사에는 박해철 국회의원과 윤성용 대부도저널 발행인, 김철진 도의원을 비롯, 100여명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안산시(병) 지역위원회 당원과 시민들이 함께 했다. 체감기온 영하 10도의 칼바람을 뚫고 백운공원 정상에서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일렁인다.

박해철 국회의원과의 함께하는 2026년 해맞이 행사가 1월1일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백운공원 정상에서 진행됐다. 이날 해맞이 행사에는 박해철 국회의원과 윤성용 대부도저널 발행인, 김철진 도의원을 비롯, 100여명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안산시(병) 지역위원회 당원과 시민들이 함께 했다. 체감기온 영하 10도의 칼바람을 뚫고 백운공원 정상에서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일렁인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로 등록될 수 있도록 물품·운영비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 제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관광 활성화는 거창한

개발보다, 관광객의 가장 기본적인 불편을 해결하는 데서 시작된다. 대부도의 다음 과제는 ‘화장실 관광 인

프라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도저널 - 지역 식당·카페, 상생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부도저널과 대부도에서 영업 중인 식당·카페들이 지역 상권 활성화와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12월 29일 오전 9시 대부도저널 신문사 3층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윤성용 대부도저널 대표이사과 지역 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서는 △홍보 콘텐츠 및 자료 공유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통한 상호 홍보 △지역행사 및 캠페인 등 공동 홍보 활동 △기타 홍보 관련 상호 합의사항 준수 △대부도저널 멤버십카드 소지자에 한해 이용금액의 10% 할인 등 총 5개 항으로 구성됐다. 협약의 핵심은 대부도저널이 멤버십카드를 발행하고, 해당 카드를 소지한 고객에게 참여 업체들이 이용금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상생 모델이다. 대부도저널은 지면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업체 홍보를 지원하고, 업체는 멤버십 혜택 제공을 통해 신문사와 지역 독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24시유흥집 △G-마트 △교포오리주물럭 △바다수산 △우리밀갈국수 △진천순대 △카캉스 △화정식당 등 총 8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향후 협약 업체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신년사

시화호와 함께 여는 대부도의 미래, 기대되는 2026년



대부도저널은 지난해 4월 7일 창간 이후 쉽 없이 달려왔습니다. 안산의 보물섬 대부도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보물을 찾아내고, 그 가치를 갈고닦아 지역의 미래로 연결하고자 노력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지역의 작은 목소리부터 큰 현안까지 외면하지 않고 기록하며, 대부도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 고민하는 신문이 되고자 한 1년이었습니다.

2026년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힘차게 달리고 도약하는 해라는 상징처럼, 대부도를 포함한 안산시가 본격적인 변화와 도전에 나서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도저널은 새해에도 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대안을 함께 제시하며 지역 발전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대부도의 미래, 나아가 안산시의 미래는 시화호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시화호는 안산시뿐 아니라 화성시, 시흥시가 함께 공유하는 공동의 자산입니다. 이제는 각 지자체가 따로 움직이는 시대를 넘어, 주제를 공유하고 개

발을 공유하며 미래를 함께 그려야 할 때입니다. 유기적인 협력 속에서 시화호의 가치를 극대화할 때, 수도권 서남부 전체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송단지의 첨단 산업 유치와 개발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는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 거북섬 해양특구와 맞물려 시화호 권역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성장축으로 연결하는 핵심 고리가 될 것입니다. 산업과 관광, 해양과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시화호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안산선이 국제테마파크를 지나 송산그린시티를 경유해 대부도까지 연결되는 날도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통 인프라의 확장은 곧 사람과 산업, 관광이 흐르는 길을 여는 일입니다. 이는 대부도의 정주 여건을 바꾸고, 지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26년은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기대가 큰 만큼 책임도 큰 한 해입니다. 대부도저널은 지역민과 함께 2026년도 대부도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을 지키며 기록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대부도의 가능성을 믿고, 안산의 미래를 확신하며, 시화호와 함께 더 큰 내일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병오(丙午)년 새해아침
대부도저널 대표이사
발행인 윤성용

윤성용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 많은 업체들과 함께할 것이며 여러분의 사

업이 살아야 신문사도 살고, 대부도 지역경제도 살아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안산시, 예우와 존중 행정... 병역 청년 · 국가유공자 지원 앞장



국가유공자와 보호 가족을 태운 안산시 차량이 안산시 자율방범대 상록연합대의 호위를 받으며 원곡공원 내 현충탑으로 이동하고 있다. 윤성용 기자

이민근 시장, 병오년 새해 첫 일정으로 현충탑 참배 보호 의미 성심으로 새겨

안산시가 병오년 새해 국가유공자와 보호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을 존중하는 행정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안산시는 '존중과 감사가 살아있는 도시 안산'을 목표로 다양한 보호·병역 지원 정책을 추진하며, 지난 1일 새해 첫 일정으로 현충탑 참배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이민근 시장은 상록구에 소재한 보호회관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와 보호 가족에게 존경과 감사, 따뜻한 예우의 마음을 표했다. 고령의 회원들이 안전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행된 버스에 이민근 시장이 함께 탑승했다.

차량 호송은 안산시 자율방범대 상록연합대(연합대장 유병권)가 맡았다. 상록연합대는 현충탑까지 이동하

는 보호단체 관계자들을 안내하며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원곡공원 내 현충탑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주요 인사와 함께 보호 단체인 안산시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보호 가족과 일반 시민들도 함께해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뜻을 기리며 보호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안산시는 그간 국가유공자와 보호 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와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으며, 올해부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인상, 보호단체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보호의 의미를 국가유공자에 한정하지 않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까지 확대하고 있다.

우선, 안산시는 지난해 7월 제정한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시에 거주 중인 현역병 입영 예정자 및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영한 청년에게 입영지원금(안산화폐 '다온'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해당자는 개별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군 복무를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월부터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병역의무 이행 청년카드(이하 청년카드)'를 온라인으로 발급·운영한다.

청년카드는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39세 이하 청년 중 현역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의무·중기·장기 복무자 포함)과 현역 복무 중인 군인이 '안산 시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

로 신청(경기특D 도민카드 앱)해 이용할 수 있다.

청년카드 소지자는 시 산하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림픽기념관·체육시설 사용료, 안산화량오토캠핑장 등은 최대 50%까지 할인, 평생교육기관 수강료는 전액 면제된다.

이민근 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민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호의 가치를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제6기 마을 세무사 10명 위촉 무료 세금 상담 지원

안산시는 지난 29일 내년부터 새롭게 활동할 제6기 마을 세무사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마을 세무사 제도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전문 세무 상담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시민들이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 온 공공 재능기부 서비스다.

제1기부터 현재까지 3,500여 건의 세무 상담 서비스가 제공됐으며, '제5기 마을세무사' 10명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683건의 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지방세 및 국제 관련 상담을 제공한 바 있다.

기존 '제5기 마을세무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롭게 위촉된 마을세무사의 활동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향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국제 및 지방세 세무 상담, 지방세 불복 청구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하남석 부시장은 "세금 문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지만 어려운 계산법으로 고민하는 시민들이 있다"며 "마을 세무사 여러분께서 시민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시길 기대하며, 시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본오3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와이즈스쿨 아동센터에 '사랑의 쌀' 전달



본오3동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연말을 맞아 지역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지난 12월 27일 안산시 관내 지역아동센터인 와이즈스쿨에 '사랑의 쌀 나눔 전달식'을 진행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본오3동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연말을 맞아 지역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안산시 관내 지역아동센터인 와이즈스쿨은 지난 12월 27일, 본오3동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최문집)로부터 쌀을 기부받는 '사랑의 쌀 나눔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돌봄을 지원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최문집 위원장을 비롯해 본오3동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원들이 함께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기부된 쌀은 와이즈스쿨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급식과 돌봄 활동에 사용될 예정으로, 아동들의 균형 잡힌 식생활과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

다. 전달식 현장에서는 위원회 회원들의 따뜻한 격려 속에 아이들이 밝은 웃음을 보이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훈훈한 모습도 이어졌다.

와이즈스쿨 관계자는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본오3동 바르게살기위원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기부는 아이들에게 큰 힘과 희망이 되었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한편, 본오3동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해 경로당,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재능기부와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 인사 <5급이상>

- 퇴직
 - 부이사관
 - △전덕주 행정안전국장
 - △이동표 단원구청장

- 정년퇴직
 - 서기관
 - △백현숙 △박구범
 - 사무관
 - △임종현 △최지영 △김연수 △서종원

- 직권면직
 - 사무관
 - △동경달 비서실장(5급상당) (2025. 12. 31. 안산시장)

- 퇴직준비 파견
 - 사무관
 - △김준근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
 - △노현우 본오2동장 △손석주 원곡동장
 - △이성희 상록구 도로교통과장
 - △신애경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장
 - △김동희 시설건립과장
 - △양진석 차량 등록사업소장
 - △최진영 수도시설과장

- 전보
 - 서기관
 - △이범열 환경복지국장
 - △김영식 행정안전교육국장
 - △이억배 농업기술 센터소장
 - △김민 단원구청장
 - △박경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 사무관
 - △김영식 환경정책과장
 - △이미령 자원 순환과장

- △임은철 복지과장 △장봉순 비서실장
- △이수애자 정보통신과장
- △강희석 외국인주민지원과장
- △이혜숙 복지정책과장 김충식 원곡동장 △최선주 상록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배진구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해양수산과장 △박병준 수도시설과장 △류제천 상록구 도로교통과장 △김성수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파견

- 승진
 - 서기관
 - △이경숙 복지국장
 - △이미령 상록수 보건소장
 - 사무관
 - △김은미 안산미래연구원 파견
 - △이갑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 △김지연 일동장 △한복수 와동장
 - △홍석재 대부동장
 - △백해숙 단원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 △임두희 시설건립과장
 - △김승호 하수과장
 - △이선옥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 사무관 직무대리
 - △최정희 본오2동장
 - △김보영 아동권리과장
 - △정미숙 상록보건소 건강증진과장 (2026. 1. 1. 안산시장)

대부도저널 광고문의
☎ 032-880-9994

안산시 인사 <6급>

- 정년퇴직
 - 주사(6급)
 - △권동철 △박성현 △원석호 △최성호
 - △신선기 △운용상 △이운병 △오정교
 - △김옥순 △황윤숙 △장재영 △문재남
 - △임기혁 △정순천 △김경희
 - △신선기(사무관 승진 후 퇴직)
 - 주사보(7급)
 - △허경숙

- 퇴직준비 파견
 - 주사(6급)
 - △안호창 본오3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 △김종일 단원구 세무행정팀장 △강영민 에너지지원팀장

- 전보
 - 주사(6급)
 - △강민수 공직감찰팀장 △윤미덕 청렴팀장
 - △김연정 기획예산과 △안희성 정책팀장
 - △조혜영 인구정책팀장 △안창호 법무팀장
 - △김민정 전략공모팀장 △염정선 전략사업과 △박준영 소상공인지원팀장
 - △김현실 중대재해예방팀장 △송이현 노동일자리과 △하익서 일자리센터팀장
 - △박경애 체육진흥팀장 △안정희(사)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 파견 연장
 - △전현훈 체육지원팀장 △백인호 관광정책팀장 △이유진 지역복지팀장
 - △유원숙 장애인정책팀장 △김은아 보육정책팀장 △윤영민 여성정책팀장
 - △고수진 공시지가팀장 △이승범 환경정책팀장 △강희경 안산미래연구원 파견
 - △김서현 후생교육팀장 △유경숙 기록물팀장 △관성화 자치행정팀장
 - △박미현 교육청소년과 △김진표 재산관리팀장 △김용재 농업기반시설팀장

- 신승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운영팀장 △김경숙 산업행정팀장 △권영관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외국인주민행정팀장 △신길주 외국인주민지원과 △박순임 차량기입인원팀장 △한성모 차량등록사업소 원천치용 상록구(6급 직위부여) △임민경 상록구 △장은석 상록구 △최부현 상록구(6급 직위부여) △황정임 상록구(6급 직위부여) △강지훈 단원구 △고근영 단원구 △김명중 단원구 △김영선 단원구(6급 직위부여) △정재은 단원구(6급 직위부여) △한상순 단원구(6급 직위부여) △성열환 세무조사팀장 우병춘 고액체납징수팀장 △최마옥 차량등록사업소 △강연주 상록구 △이진 상록구(6급 직위부여) △박명화 단원구(6급 직위부여) △서민자 단원구(6급 직위부여) △최호성 단원구 △장혜정 도시정보팀장 △김수진 시행정책혁신팀장 △김진의 복지기획팀장 김경철 돌봄정책팀장 △김년희 돌봄지원팀장 △박정옥 주거복지센터팀장 △황성애 노인정책팀장 △박보라 건강가정팀장 △최승환 아동학대 대응팀장 △최영욱 아동돌봄팀장 △김정연 상록구(6급 직위부여) △손은기 상록구(6급 직위부여) △안지현 상록구 △이희숙 상록구(6급 직위부여) △강은실 단원구 △김태준 단원구(6급 직위부여) △맹진옥 단원구(6급 직위부여) △배정옥 아동교육도서관장 △백행주 건축안전팀장 △나진영 시설건립과 △강현 에너지지원팀장 △김신영 플러스에너지센터팀장 △장원석 자원시설팀장 △정우섭 재활용팀장 △임미정 산단환경과

- △황주영 기술지원팀장 △박희국 누수방지팀장 △김영학 연성정수팀장 △김정삼 중앙도서관 시설운영팀장 △김철광 감골도서관 시설운영팀장 △양인식 단원구(6급 직위부여) △조윤진 경기도 정원산업과 파견 연장 △공성경 대부산지팀장 △문정수 단원구 △서유휘 식품안전팀장 △안상희 공중위생팀장 △최은자 식품위생팀장 △이정민 상록구(6급 직위부여) △이현숙 상록수보건소 보건정책과 △노경자삼팀장 △김미경 대부보건지소장 △박재영 안산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영주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 돌봄의료팀장 △임경희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팀장 △정일희 단원보건소 돌봄의료팀장 △최영민 상록구(6급 직위부여) △김화영 단원구(6급 직위부여) △한준석 환경생태팀장 △최원미 환경정책과 △임효선 에너지정책과 △구남임 환경측정팀장 △김원겸 폐기물관리팀장 △정용열 수질검사팀장 △정미진 오수관리팀장 △김세형 관광개발팀장 △박준옥 지구단위팀장 △조영준 상암기획팀장 △차운희 도시정비팀장 △배지희 생숙지원팀장 △권진환 시설공사3팀장 △김종호 시설공사2팀장 △송은숙 시설공사1팀장 △민홍석 도시시설1팀장 △임병찬 하천시설팀장 △이삼규 교통정책과 △최지영 주차장관리팀장 △김홍 대부관리팀장 △박재균 산단재생활성팀장 △고복규 수도시설팀장 △양기범 하수정비팀장 △장영수 상록구(6급 직위부여) △정권진 상록구(6급 직위부여) △정수경 상록구(6급 직위부여) △유명학 단원구(6급 직위부여) 추재철 단원구

- 승진
 - 주사(6급)
 - △박수연 기획예산과 △홍혜영 관광과 △유지영 도시계획과 △서미혜 철도경제자유과 △서경석 자치행정과 △오윤정 교육청소년과 △송윤혜 상록구 △조소현 상록구 △최혜정 단원구 △조항석 세정과 △천문영 징수와 △서보람 상록구 △최경석 시설건립과 △오연희 상록수보건소 보건정책과 △박경서 산단환경과 △김학록 녹지와 △이지은 도시계획과 △이매화 주택과 △윤보라 토지정보과 △박세희 공원과 △김성우 경기도계약심사와 파견 △신태호 경제자유구역청 파견 △박동훈 하수처리과

- 휴직
 - 주사(6급)
 - △류진희 교통정책과 (2026. 1. 1. 안산시장)

- 휴직
 - 주사(6급)
 - △나민정 체육진흥과 (2026. 1. 2. 안산시장)

- 전보
 - 주사(6급)
 - △정재용 도시디자인팀장 △이재호 녹지정책팀장 △이문준 사회재난팀장
 - △윤정환 해양레저팀장 △유순철 단원구(6급 직위부여) △안정미 단원공원팀장 △이정순 단원구(6급 직위부여)

- 휴직
 - 주사(6급)
 - △김미연 시민안전과 (2026. 1. 5. 안산시장)

민주당 안산병 대부동협의회, 2025 송년회 가져

박해철 의원 “대부동은 안산·경기도의 비전 더 큰 관심 쏟겠다”

더불어민주당 안산병 대부동협의회 2025 송년회가 12월 29일 오후 대부동 삼거리 인근 ‘옛날집’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해철 국회의원을 비롯해 윤성웅 대부도저널 대표, 김철진 경기도의원, 박은정·선현우·황은화 안산시의원, 김동수·나정숙 특별보좌관, 고문·자문위원, 어촌계장, 민박협회장, 박상수 협의회장 등 50여 명의 당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해철 의원은 송년사를 통해 “대부동은 안산시의 전략지역이기 때문에 지역구와 상관없는 시·도의원들도 함께 초청했다”며 “일부는 바쁜 일정

으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함께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해 웃음과 박수를 이끌어냈다. 이어 “앞으로 대부동을 안산의 비전이자 경기도의 비전을 제시하는 지역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 직접 보고해서라도 대부동의 현안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대부동은 건강, 행복, 그리고 로또 당첨이라는 세 가지 복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철진 도의원 역시 “대부도 발전을 위해 많은 분들이 경쟁하듯 뛰고 있는데, 저 또한 적극적으로 경쟁하고 있다”며 “그 마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달려왔다”고 인사해 ‘대부도 파이팅, 민주당 파이팅’ 구호가 이어졌다.

이날 송년회는 오리백숙 만찬과 함



더불어민주당 안산병 대부동협의회 2025 송년회가 12월 29일 오후 대부동 삼거리 인근 ‘옛날집’에서 개최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사량의 하트를 날리며 저물어가는 2025년을 아쉬워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께 당원 간 진솔한 대화가 이어지며, 는 화합의 장으로 마무리됐다. 깊어가는 2025년을 뜻깊게 마무리하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용혜인 의원, 연말 맞아 안산 사동지구대·성포파출소 방문



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은미 의원이 대부도에 설립 예정인 ‘경기안산1교’가 ‘선택받는 공교육’이 될 수 있도록 26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명확한 방향성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경찰공무원 노고에 감사 사동지구대 신축 필요성 점검”

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회 위원장인 용혜인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연말을 맞아 안산시 사동지구대와 성포파출소를 방문해 현장 경찰공무원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지역 치안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용혜인 의원은 관내 치안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사동지구대는 1992년에 신축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시설을 사용하고 있어, 근무 인원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다. 용 의원은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사동지구대 신축 필요성에 대해 점검했

다. 또한 다문화 인구가 밀집한 지역 특성상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 신고가 주요하게 접수되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성포동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성포파출소를 방문한 용 의원은 연말연시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경찰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일선 현장에서 시민들의 평온한 연말연시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보다 나은 근무 환경 조성과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해 국회에서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김철진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사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개념을 경기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경기도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정책 체계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한, 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거나 지정된 단지에 대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기도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철진 의원은 “뿌리기술은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이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현행 조례에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운영·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뿌리산업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 목소리를 듣고, 뿌리산업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경기도 내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관련 기업의 성장 촉진과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이은미 의원, 선택받는 ‘경기안산1교’ 될 수 있도록 방향성 설정해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부도에 설립 예정인 ‘경기안산1교’가 ‘선택받는 공교육’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방향성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안산1교는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을 공교육 환경 속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2028년 개교를 목표로 대부도에 설립을 추진 중이다. 공립형 대안학교 형태로 학생 정원의 70%를 다문화학생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은미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안산1교만의 선풍적인 방향

성과 차별성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미 추진 중인 여러 다문화 교육 정책과, 경기도 내 운영 중인 다문화 공립형 대안학교와 차별화한 경기안산1교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세 가지 구체적 방법을 제안했다.

먼저 학생구성과 교육단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경기안산1교를 선택할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상으로 하는 학생과 목표로 하는 성장의 정도를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 모두에게 분명히 제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지역 교육 격차 해소와 교

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경기안산1교 학생 모집 시 대부도 관내 학생들에게는 가점을 부여하고, 입학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및 교원을 관내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경기안산1교의 설립이 지역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내 노후화된 학교 시설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학교의 도서관, 체육관 등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것을 제

안했다.

이 의원은 “안산은 전국 시·군 단위 중 다문화학생이 가장 많은 지자체로, 이번 경기안산1교 설립을 통해 다문화 공교육의 모범적인 사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 중요한 교육의 디딤돌을 만드는 데 지역 도의원에서 앞장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도 **화정식당**은 손맛에 정성과 마음까지 함께합니다.

화정식당과 함께 다양한 한정식 메뉴를 맛보세요.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127
032-883-3007
단체석 완비 · 예약 환영

연말 이웃사랑 실천...500만원 상당 후원물품 전달

대부도미래발전위원회 대부도 미래 주민과 함께 연말의 나눔 공동체 빛내

대부도미래발전위원회(회장 황진, 이하 대발위)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대발위는 12월 30일 대부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후원금과 생필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물품은 후원금 100만원을 비롯해 쌀 20포, 김 50박스, 물케익 100개 등으로, 모두 500여 만 원 상당에 이른다. 해당 물품은 대부동 내 취약계층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대발위는 '대부동의 미래를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결성된

자발적 주민 단체다. 그동안 대부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각종 조례 제정비를 제안하고, 지역 의식 수준 향상과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후원 역시 대발위가 1년 동안 추진한 사업과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됐다. 대발위는 해마다 안산시와 대부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후원물품을 전달하며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어 지역사회 귀감이 되고 있다.

황진 회장은 “대부도의 미래는 행정만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어려운 이웃을 챙기고 돕는 일은 대발위가 추구하는 따뜻하고 밝은 대부도의 미래를 앞당기는 일”이라고 밝혔다.

대발위의 연말 나눔은 지역 공동체



대부도미래발전위원회 황진(사진 왼쪽 첫 번째) 회장과 회원들이 연말을 맞아 12월 30일 대부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장봉순(사진 가운데) 동장에게 후원금과 생필품을 전달하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의 연대와 상생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겨울 숲에서 걷고 쉬다... ‘저널트레킹투어’ 5회차

포천 국립수목원으로

대부도저널이 주관하는 2026년 1월 ‘저널트레킹투어’ 제5회차가 오는 1월 21일(수)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트레킹투어는 선착순 40명을 모집하며, 오전 7시 30분 대부도저널 주차장(단원구 상동로97, 대부북동)에서 출발한다. 참가비는 1인당 5만 원으로, 농협 351-1378-7091-43(예금주 윤성용)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트레킹 장소인 포천 국립수목원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에 위치한 국내 대표 수목원이다. 거

울철 1월의 수목원은 눈 덮인 숲길과 고요한 분위기가 어우러져 도심에서 벗어난 차분한 힐링 시간을 제공한다. 탐방로는 경사가 완만하고 데크길과 쉼터가 잘 정비돼 있어 시니어들도 무리 없이 함께 걸을 수 있다.

또한 실내 전시관을 통해 추위를 피하며 식물 이야기를 듣고 휴식을 취할 수 있어, 걷기와 쉼을 동시에 즐기자 하는 겨울 나들이 코스로 제격이다. 트레킹 관련 문의는 대부도저널(032-880-9994, 010-6595-9944) 또는 김태창 편집국장(010-4900-4152)에게 하면 된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국립수목원 정문 모습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동 지사협, 8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 방한조끼 전달

“따뜻한 겨울 나세요” 대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홀몸어르신 117명에 온정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희영)는 지난 22일 관내 85세 이상 홀몸어르신 약 117명을 대상으로 방한용 조끼를 전달하며 겨울철 안부를 살피는 이웃돌봄 활동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나눔은 추운 겨울철 고령의 어

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정서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부동 지사협 위원들은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방한용 조끼를 전달하고,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인사와 함께 생활상의 불편 사항과 건강 상태를 세심히 살폈다. 짧은 방문이었지만 말벗이 되어 안부를 묻는 시간은 어르신들에게 큰 위로가 됐다.

특히 이번 방한조끼는 대부사랑후원회가 대부동 지사협에 후원한 500만 원으로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해당 후원금은 대부포도축제 기간 3일 동안 지사협 위원들이 먹거리와 체험부스 운영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조성된 것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만든 나눔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최희영 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낼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봉순 대부동장도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따뜻한 나눔의 결실”이라며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며 촘촘한 돌봄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제일교회, 무료 미용 봉사로 연말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대부북동 종현마을에 위치한 대부제일교회가 연말을 맞아 지역 주민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대부제일교회는 지난 12월 26일, 성도들의 재능기부로 마련한 ‘무료 미용

봉사’를 진행하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이번 무료 미용 봉사는 교회 1층에서 열렸으며, 남녀 구분 없이 컷트와 염색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경제적 부담으로 미용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어르신들과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이원철 목사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

람을 삶으로 실천하며,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없도록 돕는 것이 사명”이라며 “지역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은 교회가 되고자 무료 미용 봉사를 시

대부황금·포도클럽 안산시파크골프협회 인준

대부 파크골프 새 도약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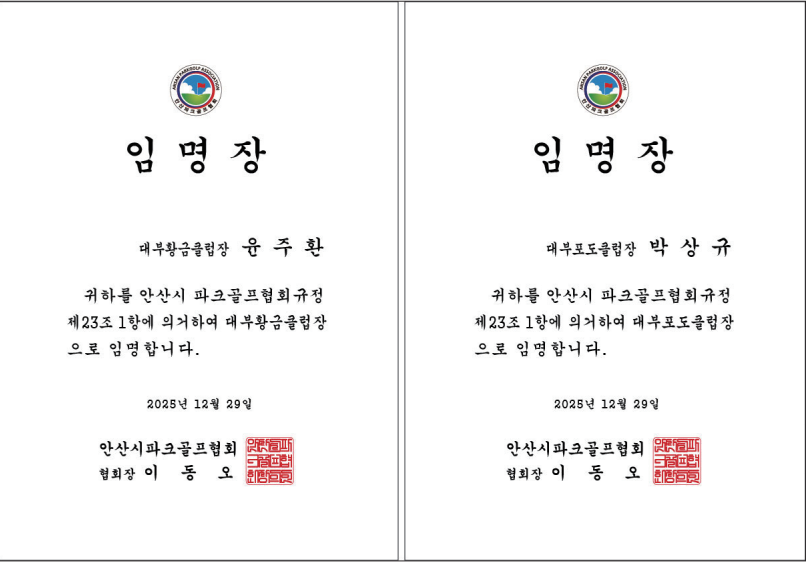
대부황금클럽과 대부포도클럽이 안산시파크골프협회로부터 공식 인준을 받으며 지역 파크골프 활성화에 탄력이 붙고 있다. 안산시파크골프협회 이동오 협회장은 12월 29일 대부황금클럽장 윤주환, 대부포도클럽장 박상규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하고 두 클럽을 정식 파크골프 클럽으로 인준했다.

이번 인준은 안산시파크골프협회 규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절차로, 클럽 운영의 안정성과 공신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 대부파크골프클럽 산

하에는 황금·포도·바다·해솔 등 4개 클럽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황금과 포도 클럽이 먼저 인준을 마무리했다. 나머지 2개 클럽도 인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대부 지역 파크골프가 다시 옛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준을 받은 클럽은 각종 대회 참가와 협회 임원 선거 출마가 가능하고, 파크골프장 이용 시 우선권을 부여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반면 인준을 받지 못한 클럽은 이 같은 기회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동 이영화교동짬뽕,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매월 정기후원

50년 종식 인생의 나눔 이영화교동짬뽕, 한부모 가정에 온정 전해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에 위치한 이영화교동짬뽕(대표 이영화)이 관내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정기후원에 나서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대부동 행정복지센터는 23일 이영화교동짬뽕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 2곳을 대상으로 매월 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영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매월 꾸준히 이어지는 정기후원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영화 대표는 50여 년간 종식업에 종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해

온 인물로, 평소에도 나눔 실천에 앞장서 왔다. 특히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는 ‘짬뽕데이’를 꾸준히 열어 이웃 사랑을 실천해 왔으며, 이러한 활동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영화교동짬뽕은 값고 진한 국물 맛으로 소문난 대부동의 대표 맛집으로, 지역 주민은 물론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영화 대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나눔을 계속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장봉순 대부동장은 “어려운 시기에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이영화 대표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작은 실천이지만 사랑을 전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부제일교회의 무료 미용 봉사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기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 목사는 “대부도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봉사”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섬김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정찬빈 시민기자 jeongcb@hanmail.net

안산시, 교육청 간담회... 반달섬 교육여건 개선·복합시설 건립 협력

반달섬 일원 교육여건 개선 학교 복합시설 건립의 가치 재창출 하기로 공동 협력

안산시는 지난달 31일 경기도 안산 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진)과 관내 교육 현안 공유 및 공동협력을 지속 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반달섬 내 교육 여건 개선을 비롯한 학교 복합시설 인프라 확장 방안 등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양 기관의 공동협력에 기반해 향후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안산시 단원구에 소재한 시화멀티테크노벨리(MTV) 반달섬 일원은 지속되는 개발사업으로 인구 유입, 학생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시와 안산교육지원청은 인근 초·중 학교까지 통학버스 운행을 지원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공동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또, 학교 복합시설 건립 추진 중인 옛 경수초 주변은 조성 시까지 도시 공동화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사업의 조속한 전개를 위해 오는 2월과 4월에 있을 경기도교육청 교육 재정투자 심사와 중앙투자심사에 걸쳐 긴밀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민군 시장은 복합시설 내 시청자미디어센터 유치를 제안하



이민군 안산시장(가운데)이 2025년 12월 31일 김수진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왼쪽 네번째)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함께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는 등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안산 교육지원청과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24일 광고 소재 경기도교육청을 방문, 임태희 교육감을 만나 시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반달섬 내 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필요성 건의 ▲교육 혁신 플랫폼 기반의 학교 복합시설 건립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안산시는 지난해 6월 한양대학교 ERICA, 안산인재육성재단과 공동으로 영재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관내 초·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시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으로서의 정식 설립·운영 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올 상반기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할 예정으로, 이 시장은 추진 과정에 있어 협력을 요청했다.

교육 현안 전반을 청취한 임 교육감

은 “모든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 현장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천해 나가겠다”며 화답했다.

이민군 시장은 “교육의 투자가 곧 도시 미래의 투자”라며 “재정 여건을 넘어 교육 예산 확충과 정책 혁신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재교육부터 인프라 확충에 이르기까지 안산 교육의 미래를 위한 행정에 전력 투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대부동 지사협,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물품 제작



단원구 대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민들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자 자체 홍보물품인 응급키트 총 100개를 제작해 홍보활동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단원구 대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민들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자 자체 홍보물품인 응급키트를 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응급키트는 200만 원 상당으로 총 100여 개를 마련했다. 해당 물품은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주민들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홍보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대부동 지사협은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오고 있는 개인 및 업체들에게 직접 홍보 물품을 전달하고, 그동안 후원과 나눔을 실천해 준 데 대한 감사의 인사

를 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나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희영 민간위원장은 “응급키트는 단순한 물품이 아니라 이웃을 살피는 관심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복지사각지대를 세심하게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봉순 대부동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번 홍보 물품 제작과 감사 방문이 이웃 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안산시우드볼협회, 2025 송년 우드볼 경기 성황



안산시우드볼협회는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우드볼 경기를 지난 12월 27일 안산시 호수공원 우드볼 경기장에서 개최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우드볼협회(회장 윤재상)는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우드볼 경기를 지난 12월 27일 안산시 호수공원 우드볼 경기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약 200명의 회원이 참여해 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과 화합을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송년경기는 회원들이 땀을 흘리며 팀워크와 배려로 나누는 대항전 방식으로 진행됐다. 팀별 점수를 합산해 승부를 겨룬 결과, 종합점수 2,603점을 기록한 청팀이 2,588점의 백팀을 누르고 승리했다. 승패보다는 참여와 화합의 의미를 강조한 경기 운영이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개인 성적 위주의 경쟁을 지양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2인 1조를 구

성, 최저 점수 합산 방식으로 순위를 정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시상은 1위부터 7위까지 진행됐으며, 경기일이 12월 27일인 점을 반영해 '7'이 포함된 마지막 등위까지 특별 시상이 이어졌다. 참가자 전원에게 경품이 제공되는 등 푸짐한 구성으로 현장 분위기를 더욱 훈훈하게 만들었다.

대회 결과 1위는 류재욱·조종락 조(108타)가 차지했으며, 민병희·김예순 조, 지진태·최연순 조 등이 뒤를 이었다.

윤재상 회장은 “승패보다 건강과 화합을 우선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우드볼 저변 확대와 회원 간 교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市, (재)경기테크노파크로부터 후원금 608만 원 기탁받아

안산시는 지난 30일 (재)경기테크노파크(정진수 원장)로부터 사랑의 후원금 608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재)경기테크노파크는 지역사회 공헌 인준제 심사에서 2년 연속 인정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 이번 나눔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

정진수 원장은 “지역사회로부터 받

은 신뢰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나눔과 상생을 실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후원금 기탁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안산시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복지국장은 “지역사회에 꾸준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해 주신 경기테크노파크에 감사드리며, 따뜻한 마음을 담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안산대학교 RISE사업단 지역사회 맞춤형 비학위과정 완료

「동물매개심리상담사 2급」

안산대학교(총장 윤동열) RISE사업단은 지난 12월 22일, 지역사회 맞춤형 비학위과정인 「동물매개심리상담사 2급」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RISE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과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운영되었으며, 2025년 9월 8일부터 12월 22일까지 매주 월요일 3시간씩 총 45시간에 걸쳐 대면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취박기령심리상담센터 박기령 강사가 맡아 ▲동물매개치료학 ▲치료도우미동물학 ▲심리상담 이론 ▲동물매개치료 기법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실무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동물매개심리상담사 2급 자격시험(사단법인 한국동물교감교육협회 인증)’을 함께 운영해, 수료생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

한 전문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안산대학교 동물매개케어학과 신동윤 교수는 “본 과정은 동물매개심리상담의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상담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며 “지역사회 복지 및 상담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안산대학교 RISE사업단 김태욱 단장은 “이번 「동물매개심리상담사 2급」 과정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RISE사업단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평생교육 거점으로, 지역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비학위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지역 주민의 역량 향상과 평생학습 기회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탁받은 후원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 및

한부모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주)태성기전, 대부동 취약계층 아동 가정에 후원금 기탁



단원구 대부동 행정복지센터는 (주)태성기전(대표 오옥란)으로부터 대부동 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현금 500만원을 기탁받았다고 31일 밝혔다.

화성시 장안면에 위치한 (주)태성기전은 1968년에 설립되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을 타겟으로 전기콘트롤박스과 분전반을 주력 생산하는 기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이번 기탁을 통해 이웃사랑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오옥란 (주)태성기전의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봉순 대부동장은 “힘든 시기에 대부동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고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오옥란 대표님께 깊은 감사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백운동, 꼬마셋별어린이집에서 라면6박스 후원받아



단원구 백운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9일 꼬마셋별어린이집으로부터 라면 6박스를 후원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어린이집에서 진행한 ‘시장놀이’를 통해 모은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시장놀이는 아이들이 집에서 가져온 물품을 직접 사고파는 체험 활동이다.

꼬마셋별어린이집(원장 현혜원)은 백운동 경남아파트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으로, 아이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번 후원을 준비했다. 후원된 라면은 독거

어르신 등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현혜원 원장은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 모은 수익금으로 이웃을 도울 수 있어 더욱 뜻깊다”며 “작은 경험이지만 나눔의 기쁨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란 백운동장은 “아이들의 정성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어지는 따뜻한 나눔이 백운동을 더욱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주)제이유이엔씨 김주호 대표, 성포동에 쌀 기탁



상록구 성포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0일 성포동 주민인 (주)제이유이엔씨 김주호 대표로부터 쌀 10kg 100포를 기탁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주)제이유이엔씨는 안산시에 본사를 둔 태양광 설치 전문기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태양광 전문기업이다. 김주호 대표는 2021년 쌀 100포 기부를 시작으로 매년 성포동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100포씩을 꾸준히 기탁하고 있다. 또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마스크 2,000매를 기부하는 등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다.

김주호 대표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 싶었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나눔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순덕 성포동장은 “매년 변함없는 관심과 나눔을 주신 김주호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탁된 쌀은 중증 장애인 가정과 홀몸 어르신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리더스코스메틱 골판지상자 사업부, 신길동에 온정



단원구 신길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0일 (주)리더스코스메틱 골판지상자 사업부(상무이사 엄규환)로부터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랑의 라면 200박스를 기탁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주)리더스코스메틱 골판지상자 사업부는 화장품 및 골판지 전문기업으로, 1984년 설립 이후 40년간 골판지 원단 및 상자를 제조해 온 국내 대표 골판지 제조사이다.

해당 사업부는 12년 동안 매년 신길

동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라면 후원을 지속해 오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올해도 변함없는 후원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이종인 신길동장은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주)리더스코스메틱 골판지상자 사업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쥬얼핸즈, 외동 독거노인 70가구에 떡국떡 후원



단원구 외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9일 쥬얼핸즈 기업으로부터 관내 독거 어르신을 위한 떡국떡·사골국물 70세트를 기탁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우영 대표이사는 “연말을 맞아 주변 어르신들을 위해 나눔 활동을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추운 날씨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고 풍요로운 연말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애 외동장은 “관내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쥬얼핸즈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며 “보

내주신 물품은 따뜻한 마음을 담아 어르신들께 잘 전달돼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명희 외동 통장협의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독거노인 어르신들께 정성과 온기를 전해드리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탁받은 떡국떡·사골국물은 외동 통장(70개 통)들이 산타모자를 쓰고 직접 어르신들을 방문해 생활실태 및 안부를 확인하며 전달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일동, 마을과 함께 성장한 일동 청년 STORY 개최



상록구 일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9일 일동 행정복지센터 4층에서 우리동네 청년들의 작은 음악회 ‘일동 청년 STORY’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마을과 함께 성장한 일동 청년 음악가들의 공연과 이야기를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따뜻한 연말을 보내고자 공연이 기획됐으며, 일동 행정복지센터와 일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인 LNS, 일동청년예술가네트워크, 소

흥이 협력해 마을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로 추진됐다.

이혜숙 일동장은 “이번 공연은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참여하여 신나는 공연뿐만 아니라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어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일회성 행사가 아닌 청년 주도의 지역 문화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낚시대의 명가 장인 정신이 깃든 100% 주문제작
“더존”과 함께 나만의 낚시대 를 만들어보세요.
주문제작:010-3732-0331



법률사무소 화정
PARK & KIM LAW OFFICE

깊이 듣고, 끝까지 함께 합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박태훈 대표변호사

연락처 : 010 - 7929 - 8012

약력 및 경력

現) 법률사무소 화정 대표변호사
現)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 고문변호사
現) 경기도 운수연수원 외 다수법인체 법률고문변호사
現) 수원지방법원 조정위원

前) 경기도 경찰청 민간교통심사위원회 위원장
前)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前)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前)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
前) KT 고문변호사
前) 서울마주협회 고문변호사
前)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창회 상임이사 및 24회 동창회장
前)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지역부총재, 법제위원장, 감사
前)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및 법과대학 상임이사

변호(담당) 전문 분야

- ◆ 형사 소송
 - ▶ 성범죄(강제추행, 유사강간등) 명예훼손(사자) 및 모욕
 - ▶ 강력범죄(상해, 폭행치상), 재산범죄(사기, 횡령, 보이스피싱 등)
 - ▶ 학교폭력(정보망 허위사실유포 등) 및 중대재해법(기업 및 법인 포함)
 - ▶ 도로교통법 위반(뺑소니, 음주운전) 사건-해양포함
- ◆ 형사 소송
 - ▶ 대여금반환청구,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청구, 지급명령신청
 - ▶ 가압류가처분, 각종 기업소송 및 자문
 - ▶ 중대 교통사고(손해사정)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물·인적)
 - ※운전자보험(변호사 방어비용 선입) 및 면허행정소송 등
- ◆ 행정 소송
 -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증액(감액), 면접교섭변경신청,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 ▶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각종 인·허가 관련 행정 자문
 - ▶ 공무원행정소송 등

광 고 문 의

032 - 880 - 9994 dj250407@naver.com



프리미엄 선물용 타올

맞춤제작, 로고자수, 감성포장
KC인증/OEKO-TEX 1등급, 유아안전인증

1. 행사 답례품: 기업, 관공서, 학교, 교회
2. 숙박업 호텔 리조트용, 가정 생활용

J&CROSS 대표 최재원 M: 010.7259.2177

*** 전원주택 매매 물건 찾습니다 ***



김선중 공인중개사

TEL (032) 883-1554
Mobile 010-3399-4992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132 (대부남동)

준공 5년 이내 신축
대지 150평 내외, 건물 30평 내외, 방3개
연락을 기다립니다.

김선중 공인중개사 M: 010.3199.4992




합리적인 가격으로
아름다운 정원을
선물합니다.

(관리 전) (관리 후)

정원관리
010-8973-2371



대부도 핫플
오션뷰 브런치카페
카캉스

조재숙 M: 010.2492.1800
안산시 단원구 대부항길로 1501-1



히든 펜션
최은숙

안산시 단원구 대호1길 19 M: 010.9913.8956



편 객실 바다전망 테마가 있는 유럽풍 펜션

아테네펜션

차준경 M: 010.5353.2755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622-5



미래기획

25년 경력 간판. Led채널. 현수막. 씬팅. 현수막

이 병 철 M: 010.9366.9699



행정사사무소

박정탁 M: 010.2378.712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한주토목측량설계공사

김장식 M. 010.5345.985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40-1 (대부북동)

최욱진 세무회계사무소

최욱진 T: 031.8042.6670

안산시 상록구 28,201호(본오동,보노피아빌딩)

선재낙시공원

조부형 T. 032-710-4340

대부도 바움펜션

황진 M. 010-7741-1150

(주) 황금토목측량설계공사

유재용 M. 010.3433.46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로1288 (대부북동)

GS25 대부포도점

빈호준 M. 010.9220.203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132(대부남동), 202호

말부흥 어촌계

계장 신준선 M. 010.7340.5511

K3 바다낙시터

최병희 T. 032-885-522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643-35

용담바다낙시터

오준태 T. 032-886-8969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용담바다낙시터

등대바다낙시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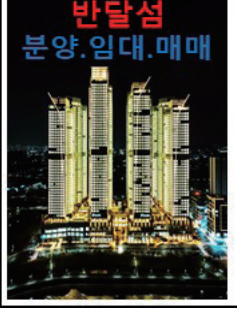
이한중 T. 0507.1331-134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187-4

리라조경

박용복 M. 010.3703.9300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재로 34번길 23, 103호



(주)대동토지개발

양금순 M: 010.8722.5095

안산시 단원구 시화호수로 633, 118호

규현공방

수족관 제작에서 관리까지 맡겨주세요

조규현 M: 010.4071.2797



웅진군 ‘선재도 관광안내소 및 공중산책로’ 준공식 개최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

웅진군은 지난 30일, 인천 웅진군 영흥면 선재리 일원에서 ‘선재도 관광안내소 및 공중산책로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지역 주민,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선재도의 관광 인프라 완공을 축하하며 사업 추진 경과를 공유했다.

선재도는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뛰어난 섬으로, 그동안 당일치기 관광이 주를 이루었다. 웅진군은 이를 넘어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하기 위해 이번 관광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했다.

관광안내소는 연면적 약 440㎡, 2층 규모로, 1층은 관광 정보 제공과 안내 기능을, 2층은 선재도의 자연과 주민의 삶을 담은 마을전시관으로 구성되어 방문객들에게 선재도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한다.

공중산책로는 선재도 공영주차장과 목섬 산책로를 연결하는 보행로로, 바다와 갯벌, 목섬 경관을 입체적으



웅진군은 지난 30일, 인천 웅진군 영흥면 선재리 일원에서 ‘선재도 관광안내소 및 공중산책로 준공식’을 개최했다.

윤성용 기자

로 감상할 수 있는 시설이다. 야경 경관과 휴식 공간도 마련되어, 향후 선재도의 대표적인 경관 명소가 될 전망이다.

문경복 군수는 “이번 준공은 선재도를 ‘머무는 섬’으로 만드는 첫걸음”이

라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관광 환경을 만들고, 선재도를 체류형 관광지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웅진군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선재도를 체류형 섬 관광지로 발전시키

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 연계 프로그램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선재도를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겨울에 전해진 따뜻한 나눔 배움의 길에 온기를 더하다



(재)웅진군인재육성재단은 지난 26일, 웅진군청에서 인천웅진농협과 백령농협으로부터 장학금을 전달받는 기탁식을 개최했다. 김태창 기자

인천웅진농협·백령농협 (재)웅진군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3천만원 기탁

웅진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을 위해 지역 금융기관의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재)웅진군인재육성재단은 지난 26일, 웅진군청에서 인천웅진농협과 백령농협으로부터 장학금을 전달받는 기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학생들의 학업 지원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뜻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전달된 기탁금은 인천웅진농협 2,000만원, 백령농협 1,000만원이며, 해당 장학금은 웅진군 학생들의 학업 장려와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금융기관으로서,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탁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고,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재)웅진군인재육성재단은 “지역 금융기관에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관심과 신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금은 웅진군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도전을 응원하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단은 앞으로도 장학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구축을 통해 해양 환경 보호 및 공공수역 수질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공하수처리구역에 미포함된 지역에 대해서도 인천시 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다운 기자 jdujdu000@nate.com

이름없는 천사, 영흥면사무소에 현금 약100만원 기탁

웅진군 영흥면은 지난 2일, 이름없는 천사가 영흥면사무소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써달라며 현금 약100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놓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고 밝혔다.

기부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소박한 뜻을 전하고, 별도의 행사 없이 조용히 영흥면사무소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세상을 떠난 배우자와 함께 일자리 급여의 일부와 각종 폐기물을 모은 수입금을 10년간 기부하자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약 7년 전부터 이어진 것으로 밝혀져,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기부자의 깊은 나눔 정

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기부자(최화순 님)와 돌아가신 배우자(권금수 님)의 약속이 선행 영향력을 전하는 불씨가 되길 소망하기 위해 영흥면의 실력으로 이름을 밝히게 되었다.

영흥면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웃을 먼저 생각해 준 기부자의 소중한 뜻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자 뜻에 따라 성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탁된 성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영흥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생활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정다운 기자 jdujdu000@nate.com

웅진군, 4개 도서지역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준공

“섬마을 악취 해소 기대 생활환경·해양수질 개선”

웅진군은 시도, 장봉, 승봉, 덕적도 등 4개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 공공하수도 건설사업을 2025년 12월 기준 성공적으로 준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서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공공수역 수질 보전을 목표로 추진된 것으로, 그동안 개별 정화조 사용으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하수처리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 장봉1, 승봉 공공하수도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2019년 환경부

하수도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77억 원이 투입됐다. 이를 통해서 ▲시도 174가구 ▲장봉 167가구 ▲승봉 156가구의 배수설비가 신규 공공하수처리장(물순환센터)에 연결되었다.

또한 ‘덕적도 진리 공공하수도 건설사업’은 2020년 환경부 하수도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87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진리 252가구의 배수설비를 신규 공공하수처리장(물순환센터)에 연결하였다.

웅진군은 이번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준공으로 가구별 정화조 관리 비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하수 처리 체계

주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부도, 혁신과 관광이 만나는 미래도시”

대부도미래발전위원회(회장 : 황 진)는 2022년 6월 창립 이후 대부도에 인구 5만 명을 수용할 혁신도시를 조기에 조성할 목적으로 규제 완화, 낡은 관행과 절차의 혁신, 대부도 공식 관광지 지정에 힘써 왔습니다.

내년에는 대승단지에 AI 데이터 센터 등 최첨단 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운동(공약 실천 촉구 운동)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의 어려운 분들과 함께하는 자선 모금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아갈 계획입니다.(지난 3년간 약 2,500만원 상당 성금 및 물품 전달)

규제 혁신 · 관광 개발 · 첨단 산업 유치 · 나눔
네 가지의 약속은 인구 5만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우리의 다짐입니다.

“발전과 사람, 그리고 대부도를 위하여”

대부도미래발전위원회 임·직원 일동

신년사 | 경기도지사 김동연

신년사 |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

신년사 |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임태희

사람의 삶이 바뀌는 변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엮니다



사랑하는 1,421만 경기도민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삶을 일구며 이웃과 공동체,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희망을 함께 키워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땀과 노력 위에 오늘의 경기도가 서 있습니다.

경기도는 국민 네 분 중 한 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자,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경제를 이끄는 핵심 지역입니다.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숨 쉬고, 산업과 자연이 공존하며, 혁신으로 내일을 여는 가장 역동적인 공간, 바로 ‘작은 대한민국’이 경기도입니다.

지난해 저는 “달려가는 곳마다 달라 집니다”라는 약속을 품고 경기도 곳곳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진짜 힘은 제도나 숫자가 아니라 국민에게 있으며, 그 중심에 경기도민이 계

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깊이 확인했습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을 지키고 삶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 곧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는 길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국민주권’의 새로운 시대를 향해 우리 민주주의는 위기를 넘어 더욱 단단해졌고, 경제 또한 재도약의 기틀을 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국정 제1동반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없이 달려왔습니다.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주 4.5일제’,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간병 SOS 프로젝트’,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기후보험’까지, 경기도는 늘 한발 앞서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2026년에도 중앙정부와 더욱 굳게 손을 맞잡고, 도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고 31개 시군이 고르게 발전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경기도 어디에 살든 “내 삶이 확실히 좋아졌다”, “나는 경기도민이다”라고 자랑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도민 여러분이 계신 곳마다 행복이 깃들고, 하시는 모든 일에 보람과 성취가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병오년 새해 아침에
경기도지사 김동연

도민의 삶을 지키는 책임 의정으로, 반등의 길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희망의 기운이 깃든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광야를 거침없이 내달리는 붉은 말의 힘찬 기운과 용기가 올 한 해 도민 여러분의 일상과 삶의 여정에 가득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25년, 대한민국 사회는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 경제의 불안과 민생의 무거움이라는 큰 변화를 온몸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무게만큼이나 도민 여러분의 어깨도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삶을 지켜내며,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헌신과 인내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6년은 위기와 어려움을 넘어 다시 도약하는 ‘반등의 해’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는 더 큰 책임과 각오로 도민의 삶을 지키는 길 위에 흔들림 없이 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지난 4년간 도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지방의회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기 위해 부단히 노

력해 왔습니다.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행까지 책임지는 ‘책임 의정’을 구현하고자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운영하며 입법의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지역별 민생 현안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의정정책추진단 체계를 통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 전국 최초의 의정연수원 설립 기반을 마련해 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토대를 다졌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향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더불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과 함께한 여야정협치위원회는 정쟁을 넘어 민생 중심의 협력을 복원하고, 새로운 지방정치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올해는 제11대 경기도의회의 4년 임기가 마무리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도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책임 있게 완수하고, 다음 의회가 더욱 단단한 토대 위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의정의 길을 차분히 정돈해 나가겠습니다. 언제나 도민의 목소리에 더 낮게 귀 기울이며, 믿고 기댈 수 있는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병오년에 담긴 뜨거운 생명력과 추진력을 안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이 다시 힘차게 뛰어오르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오늘과 내일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 따뜻한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일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

경기미래교육, 중심을 지키며 더 멀리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이 계획하신 모든 일에 힘찬 출발과 좋은 결실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며, 붉은 말의 기운처럼 도전과 추진력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비전으로 민선 5기 경기도교육감으로 취임한 지도 어느덧 3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경기미래교육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주신 모든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1개 전 지표를 달성하며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인공지능 혁신과 공약 이행 성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경기교육의 우수 사례는 유네스코 공식 보고서에 소개되었고, 미래교육의 ‘키(Key) 파트너’가 되어 달라는 제의를 받을 만큼 세계가 주목하는 교육 모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경기교육가족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

습니다.

2026년에도 경기교육은 미래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공교육이 먼저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AI 기반 수업과 서·논술형 평가, 하이러닝 플랫폼은 교사의 전문성을 보조하고 학생의 성장을 돕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교사는 교육 본연에 더 집중하고, 학생은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교육은 학생 중심 교육, 맞춤형 교육, 공정한 교육 기회를 흔들림 없이 지켜가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쌓아온 ‘자율·균형·미래’의 경기교육 기조가 외부 요인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단단히 살피겠습니다. 교육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울러 정당 맞기기와 줄 세우기에 머문 현 대학 입시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는 경기미래교육 완성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저는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옳다고 믿는 방향이라면 그 책임을 기꺼이 짊어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 학생의 3분의 1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경기미래교육의 완성을 위해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새해에는 경기교육이 더 높은 신뢰 속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1월 1일
경기도교육감 임태희



저널트레킹투어 회원모집

‘대부도저널’에서 매 월 1회씩 전국 유명 트레킹 장소를 투어하는 ‘저널 트레킹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걷는 것을 좋아하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다섯번째 저널 트레킹

1. 일시 : 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오전 7시30분 출발 (오전7시 20분까지 집결)
2. 장소 : 포천 국립수목원
3. 모집 인원 : 선착순 40명 (여행자 보험 가입을 위한 주민번호 필요)
4. 참가비 : 1인 5만원 (식비 등 여행자보험 포함)
5. 입금계좌 : 농협 351-1378-7091-43 (예금주 : 윤성용)
6. 집결장소 : 대부도저널 주차장 (단원구 상동로 97)
7. 연락처 : 대부도저널 신문사 032-880-9994 / 010-6595-9944 (김태창 편집국장 : 010-4900-4152)

산업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도시, 전환의 중심에 안산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희망찬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 해가 밝았습니다.
민선 8기 안산시가 걸어진 지난 3년은 도시의 산업 체질을 근본부터 다시 설계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쇠퇴와 기업 성장 정체, 인구 유출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안산은 전통 제조업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의 뼈대와 경

쟁력을 처음부터 다시 세우는 과감한 선택을 해왔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시 승격 40주년을 맞는 2026년은 첨단로봇과 AI를 새로운 심장으로 삼아 안산이 다시 도약하는 ‘대전환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강소형 스마트도시이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안산에는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인프라가 촘촘히 구축되고, 자율주행 기술은 머지않아 시민의 일상 속 풍경이 될 것입니다.
반월·시화국가산단은 ‘AX(인공지능 전환) 실증산단’으로 재탄생합니다. 사람과 로봇이 함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현장, 청년들이 미래 기술을 다루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심장으로 키워가겠습니다. 특히 안산사이언스벨리의 경제자유구역 최종 확정, 글로벌 투자 유치와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해 8조 원의 경제 효과와 3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

출할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산업 혁신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로봇산업 집적 캠퍼스와 교육센터, 대학·의료기관과 연계한 인재 양성, 글로벌 국제학교 유치를 통해 미래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GTX-C 상륙수역 정착과 신안산선 연장 추진으로 서울 30분대 생활권을 완성하고, 1,400억 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와 주거 지원으로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안산선 지하화 우선대상지 선정과 도시 재생 기반 확보는 도심 대전환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변화로 증명하겠습니다.
2026년, 안산에 산다는 것이 가장 큰 자부심이 되도록 시민과 함께 다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아침
안산시장 이민근

시민과 함께 걸어온 의정, 끝까지 책임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산시의회 의장 박태순입니다.
희망찬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의 문턱에서 시민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지난 한 해 동안 흘린 땀과 노력 위에 새로운 희망이 더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마음속에 간직해 온 소망들이 일상의 성실한 걸음 속에서 차분히 결실을 맺어,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마다 따뜻한 변화와 안정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2026년은 쉽 없이 달려온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오는 6월이면 제9대 안산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기대 속에 시작했던 의정활동의 여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은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으나, 시민의 삶을 더 낮게 만들겠다는 한 가지 약속만은 흔들림 없이 가슴에 품고 걸어온 길이었습니

다.
돌아켜보면 의회는 때로는 바람을 맞서며 나아가는 배였고, 때로는 시민의 이야기를 담아 흐르는 강이었습니

다. 민생의 무게 앞에서는 깊이 숙고했고, 변화의 갈림길 앞에서는 책임 있는 선택을 고민했습니다. 그 모든 판단과 결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시민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2026년의 안산은 여전히 도전 앞에서 있습니다. 불확실한 대외 여건과 빠른 사회 변화 속에서 시민의 일상

은 더욱 단단한 버팀목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의회는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다시 세워, 말보다 실천으로, 계획보다 성과로 시민께 답하겠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의 삶을 세심히 살피고, 아이와 청년, 어르신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의 기반을 차분히 다져나가겠습니다.
병오년의 말은 쉽 없이 달리되 방향을 잃지 않는 지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제9대 안산시의회 역시 끝까지 중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곁을 지키며 말은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안산의 내일은 누군가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온 오늘 위에 놓입니다. 안산시의회는 남은 시간까지 시민과 나란히 걸으며 부끄럽지 않은 발자국을 남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일
안산시의회 의장 박태순

대부도와 안산의 지속가능한 내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을) 국회의원 김현임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대부도저널」 독자 여러분과 대부도 주민 여러분, 그리고 안산시민 여러분께 따뜻한 인사를 드립니다.
대부도는 안산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할 소중한 공간입니다. 생활과 문화, 관광과 산업이 어우러진 대

부도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교통 불편과 안전 문제, 환경 보전, 정주 여건 개선 등 오랜 시간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도 함께 존재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모일 때 비로소 변화의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대부도저널」의 역할은 매우 큼니다. 「대부도저널」은 지역 현장의 불편과 요구를 생생히 전달하며, 행정과 정치에 필요한 질문을 던져 온 지역의 소중한 공론장입니다. 지역 사회의 기록자이자 감시자로서, 또 주민과 정책을 잇는 가교로서 충실한 역할을 해오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산시(을) 국회의원으로서는 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니다. 대부도 지역의 교통 접근성 개선을 비롯해 안전과 환경 문제 해결, 지속가능한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지역 언론이 제기하는 문제에 귀 기울이며,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는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에도 「대부도저널」이 지역 사회의 소통자이자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는 4월 7일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산시민 여러분, 대부도 주민 여러분, 그리고 「대부도저널」 구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일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을)
국회의원 김현

위기를 넘어 도약으로, 민생과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희망찬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도약의 기운이 가득한 새해를 맞아 대부도저널 신문사 임직원 여러분과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함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가정마다 평화와 배려가 가득하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25년은 우리 사회가 크고

작은 위기를 동시에 겪어야 했던 한 해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불법 계엄 사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고, 정치적 혼란은 국민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민생경제 역시 그 충격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 한 분 한 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을 지켜내며 위기 극복을 위해 묵묵히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기 앞에서 언제나 강했습니다. 수많은 고비마다 연대와 책임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온 국민의 지력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힘을 바탕으로 2026년을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갈등을 넘어 화합으로, 정체를 넘어 발전으로 나아가는 희망의 정치가 실현되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국정안정과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립보다는 상생의 가치를 앞세우겠습니다. 특히 안산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중심이자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산적한 민생 과제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풀어가겠습니다.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2026년, 안산은 더욱 활기차게 성장하고 국민 모두가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뜻하신 모든 일이 결실을 맺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 1. 1.
국회의원 양문석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대부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 국회의원 박해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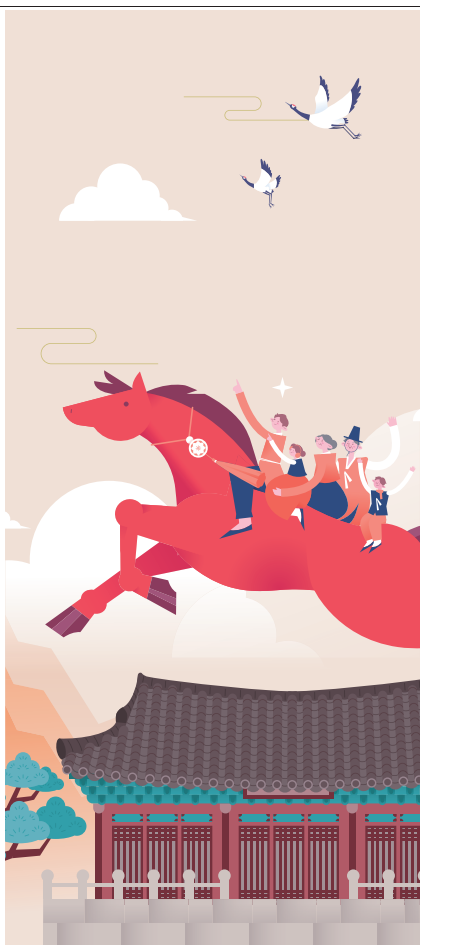
2026년 새해를 맞아 대부도저널 독자 여러분과 대부도 주민 여러분, 그리고 안산시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인사를 드립니다.
대부도는 안산의 소중한 자산이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지역입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해양·관광 자원,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조화를 이루는 대부도는 앞으로 안산의 미래 성장을 이끌 중요한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부도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민의 목소리가 행정과 정책, 정치로 온전히 반영되는 건강한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언론의 역할은 매우 큼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주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언론은 민주주의의 든든한 뿌리입니다. 대부도저널이 그 중심에서 지역의 현안을 조명하고 대안을 제시해 온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산시병 국회의원으로서는 저는 올해도 대부도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 여건 개선과 정주 환경 확충, 관광과 지역 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 교육과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 안전에 이르기까지 대부도가 안고 있는 과제들을 시·도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부도저널이 제기하는 문제의식과 정책 제안에도 늘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대부도저널이 지역 사회의 신뢰받는 동반자로서 대부도 주민과 안산시민을 잇는 공론의 장 역할을

꾸준히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4월 7일, 대부도저널 창간 1주년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6년이 우리 안산과 대부도가 한 걸음 더 도약하는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저 또한 대부도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6년 1월 1일
안산시병 국회의원 박해철



역사가 살아 숨쉬는 섬 『대부도 지명 이야기』 12회 대부도 사람들의 생활사에 재앙(災殃)이 된 시화방조제 건설(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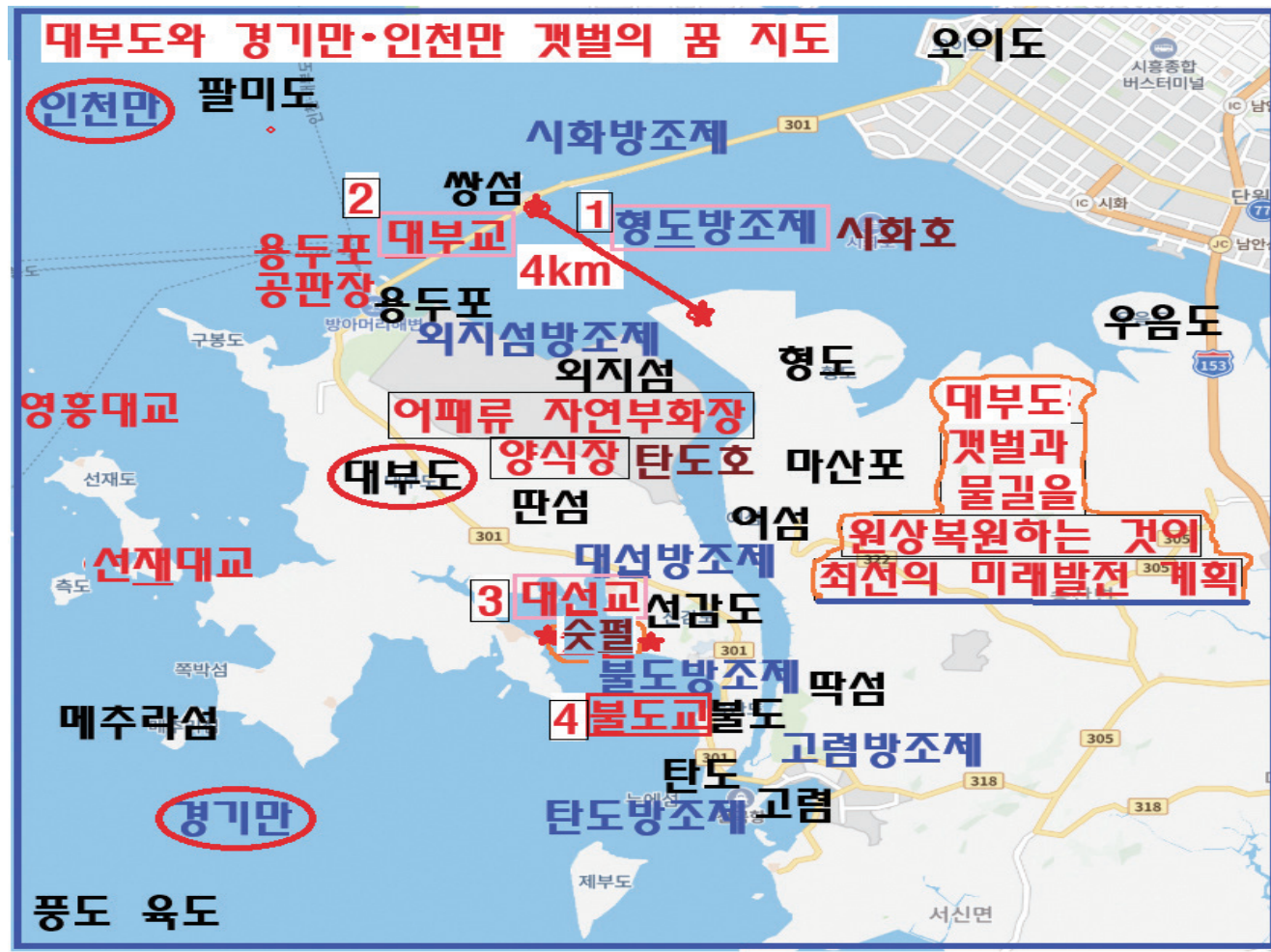


晴境(청경) 金善喆(김선철)
전 대남초등학교 교장
현 안산문화관광해설사

〈이전호 계속〉 시화방조제 완공 직후 갯벌 복원 사례가 우연히 발생한 적이 있다. 대선방조제가 허물어져 바닷물이 유통되었는데 ‘숫펄 갯바탕’이 거짓말 같이 살아나 낙지와 맛과 조개가 엄청 많이 잡혔다고 한다. 이곳은 개펄이 6m나 쌓여 진두선장 갯골이 없어지고 조개와 낙지가 지천이던 갯바탕에서 낙지 한 마리 못 잡게 된 곳이다. 신당리와 선감도 주민들이 ‘호미와 망태기 하나’면 먹고 살면서 아이들 공부까지 시키던 생활 터전이 없어진 것이다.

그 후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대선방조제는 다리를 놓고 바닷물을 유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1994년에 완공된 시화방조제로 대부도 주변 갯바탕의 어패류가 사라짐으로써 주민들은 매년 수백억원, 30여 년간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고 있다.

2020년 서울대학교 김종성 교수는 “1990년대 경기만 인근 갯벌에 가면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고 많은 갯벌



대부도-선감도-외지섬-어섬의 갯바탕과 갯골은 원상회복이 최선의 발전 계획

생물들이 살고 있었다. 당시 화성 갯벌에는 1㎡에 무려 200개체의 가리맛조개가 살 정도로 풍부하고 건강한 생물상을 보였다. 방조제 건설 후 가리맛조개의 최대 밀생 지역이었던 대부도 일대의 국산 가리맛조개는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단순 수산물 가치만으로 매해 수백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 우리는 옛 시화, 화성의 자연 갯벌을 영원히 잃어버렸고, 맛의 황제인 가리맛조개를 보기

란 이제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탄도항 근처에 충청남도 당진과 전라도에서 탄도로 이사 온 분도 ‘맛조개가 그렇게 많은 것을 처음 봤다며’ 안타까워하였다. 90년대 초 정왕동에 사는 분은 사리 때 쪽박섬에 낚시를 잡으러 가면 ‘바위를 안고 있는 낚지를 주위 담았다’면서 금세 한 통통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 말이 거짓 같아 2005년 9월 대남초등학교에 발령받아 남3리 경로당의 노인분들께 물으니 사실이라며 “낚지 한 코가 20마리인데 20코 400마리를 한두 시간에 잡으면 들 수 없어 다라에 담아 끌고 왔다”고 하였다. ‘두멍, 두멍’ 하여 그것이 뭐냐고 물으니 봄, 가을 꽃게철에 ‘바닷물이 발목 정도 고여 있는 곳’을 ‘발목두멍’이라고 하고, 꽃게들이 우글거리고 있으면 큰 놈만 골라 주워왔다고 하였다. 그렇게 ‘꽃게가 많았느냐’고 여쭙니 꽃게를 밟으면 기분이 나빠 ‘꽃게를 피해 다니느라 힘들었다’고 하였다. 20여명이 모인 마을 회관에서 들은 것

인데 이구동성으로 맞장구를 쳤다. ‘두멍은 갯벌의 숨구멍’이라 하였다.

타지역 사람들은 시화방조제 건설 때 대부도 사람들은 보상을 많이 받은 것으로 잘못알고 있다. 방조제 축조로 갯바탕의 어업권 보상금 3,000만원을 받았는데, 십 수 년이 지난 후 2,000만원은 보상금이 아니라 선지금(先支給金)이라며 원금과 십수년간(十數年間)의 이자(1980년대 말 예금금리 20%, 강남 은마아파트 31평형 4천만원)를 변상(辨償)하라 하여 돈이 있는 사람은 되갚았으나 돈이 없는 사람은 ‘차압(差押)’을 붙인다’하여 2대(二代)에 걸쳐 보상금(補償金)보다 많은 4~5천만원을 변상하였다고 한다. 억울해서 대법원까지 갔으나 패소하였고,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이 지역 출신의 오○○였다. 어민의 고혈(膏血)은 누가 먹었을까?

대부도 명산(名山) 황금산이 깎이고 황금여장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잃은 까닭에 정부(政府)와 공기업에 대한 원망(怨望)이 컸다. 더 이상한 것은

데스크 칼럼

정치의 계절, 시민은 기억한다



김태창
편집국장

정치는 결국 태도의 문제다. 해마다 새해, 설날, 추석이면 꾸준히 시민에게 인사해 온 사람이 누구인지, 선거가 없어도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져온 사람이 누구인지는 시민들이 이미 알고 있다. 선거철에만 현수막을 걸고, 선거가 끝나면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시민 곁에서 사라지는 정치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출판기념회쯤은 선거를 앞둔 통과 의례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철마다 현수막으로 얼굴을 알리고, 낙선하거나 컷오프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행태는 이제 정리가 해야 할 구태다. 처음부터 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해 현신하고, 능력에 따라 산하기관장으로 가는 것까지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하지만 시장에 도전하는 듯 시민 앞에 섰다가 탈락하자 곧바로 임명직으로 가는 모습은 시장이라는 자리를 자신의 입신양면 도구로 활용한 것처럼 비칠 수밖에 없다.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내년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유권자는 투표용지 7장을 손에 쥐고 두 차례에 나눠 투표한다. 안산시 유권자의 경우 1차 투표에서는 시장, 시의원, 시의원 비례대표를, 2차 투표에서는 경기도지사, 경기도의원,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경기도교육감을 선택하게 된다. 그만큼 선택의 무게도, 책임도 크다. 제대로 된 선량이 선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시민 모두의 공통된 소망일 것이다.

신년은 해마다 돌아오지만, 올해 거리는 유독 요란하다. 예년에는 보기 힘들었던 ‘근하신년’ 현수막이 도심 곳곳을 메우고 있다. 시민들은 “아, 이제 선거철이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한 시선을 보낸다. 선거 때만 되면 얼굴을 내밀고 현수막을 거는 후보가 과연 평소에는 무엇을 했느냐는 냉소다.

산하기관장에 갈 생각이라면 애초에 시장 선거에 나서지 말 일이다. 이번엔 안 되면 다음을 기약하는 도전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떨어지지마자 당선된 시장이 주는 자리에 앉는 모습은 시민의 눈을 속일 수 없다. 시민은 기억하고, 판단한다. 그리고 그 판단은 투표함에서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정치의 계절, 결국 답은 시민에게 있다.

우음도와 형도 등 화성지역 어민들은 승소하여 변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방조제 건설에 반대하다가 동의한 이유는 매립되면 대부도 주민들에게 원가로 토지를 나누어 준다고 하였고 갯바탕이 황폐화 될 줄 꿈에도 몰랐다고 한다(영전 박태환 장로, 박철홍

전통장, 두우현 신영철 외 다수). ‘대승습지발전계획’의 우선과제는 조류(潮流) 복원→갯바탕 복원→산소공급→생물 다양성 회복→어민 일자리 창출이 ‘최선의 대부도와 경기만·인천만 발전계획’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윤리적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언론

대부도저널

창간 2025년 4월 7일

주 소
대표전화
홈페이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상동로97, 3층(대부북동)
(032)880-9994 팩스 : (032)880-9961
www.daebudojournal.com
E-mail_ dj250407@naver.com
입금계좌 : 신한 131-022-633961(대부도저널주식회사)

대표이사/발행인 윤성용 편집국장 김태창 광고국장 김선중

등록번호 경기 다50794 구독료 월10,000원 | 1부 3,000원(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행정사사무소



대부도측량설계사무소

대표 박정탁

안산시청 공무원 출신 행정사

- ◇ 2004년 안산시청 입사
- ◇ 2021년 안산시청 퇴직
- ◇ 대부도 3차례 근무 : 대부도 인허가 담당 (12~13년, 18년~21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Tel.032-880-8533 Fax.032-880-8532
Hp. 010-2378-7128 wjdxkr78@hanmail.net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가설건축물

(체류형쉼터,농막)

개발부담금

불법사항해소

(건축물,임야,농지)

진정서, 탄원서

농지취득증명

각종민원해소

건강해지고 싶다면?



소문난 양꼬치

15년 전통의

“양꼬치 명인” 드디어 대부도에 상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216-21(대남로64)

예약문의 032-880-8687
010-7233-0188

출장문의 010-2115-3999

*양통다리 양통갈비 양꼬치 전문
*수년의 노하우로 잡내제거 완벽
*출장 요리 서비스 가능
*단독건물 · 넓은 주차장 (20대 가능)